

‘영랑’ 자녀-여류화가 ‘손녀’ 표현 법정 다툼

한국 서정시의 대표작가인 영랑(永郎) 김윤식 선생(1903~1950)의 자녀들이 광주지역 한 여류화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랑의 자녀 8명 중 김모(여·71·해남군 계곡면)씨 등 생존자녀 4명은 27일 “중견 여류화가 K씨가 수필집을 발간하면서 마치 부친의 친손녀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해 부친은 물론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K씨를 상대로 자녀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K씨가 지난 1999년 139쪽 부랴의 수필집을 펴내면서 강진군 소재 ‘영랑 생가’에서 태어난 영랑의 친손녀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책을 판매했다”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K씨가 이를 거부해 부친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씨는 영랑의 친손녀가 아닌 12촌 손녀뻘 되는 관계임에도 수필집에 ‘조카 손녀뻘’이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히 손녀뻘이라고 기재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영랑의 친 손녀뻘인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게 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수필집은 1천500부가 발행됐다.

K씨는 이와 관련 “저자 소개란에 ‘영랑의 조카 손녀’로 기재됐고, 평론가 글에도 ‘영랑의 조카 손녀뻘’로 기재됐다”면서 “수필집에 영랑의 친손녀라는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밝혔다. K씨는 또 “현재 중국 체류 중이어서 소장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 “귀국하는대로 소장을 검토한 후,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택 관련 공기업 직원 24억 사기

주택 관련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모님 아파트를 수의 계약(경매나 입찰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과 임의로 맺는 계약)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며 수심익원대 사기행각을 벌였다.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D사 직원 김모(35)씨가 친구 등 18명에게 “부모가 난 광주시 남구 진월동 P아파트를 수의 계약으로 구입하면 20일 만에 원금의 7~8%에 달하는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속여 20여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 간부명의로 보증금증서 등 업무에 관련된 각종 공문서를 위조, 주변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에도 또다른 6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4여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불발탄에 발목 잡히나

최근 6개 수거 공사관계자들 불안...국방부에 지원 요청

미확인 불발탄 처리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의 난제로 떠올랐다. 44년 동안 육군포병학교의 포 사격 탄착지로 이용되던 개발 예정지에서 최근 다량의 불발탄과 포탄이 발견된 것이다. 광주시는 국방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불발탄을 모두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해 전진 긍정하고 있다.

◇10년 만에 또 불발탄 발견=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 시공사인 삼능건설 관계자, 군부대 폭발물처리반 등은 지난 21일 어등산 관광단지 예정부지에서 105mm 야포탄 등 6개의 불발포탄과 20여개의 탄피를 수거했다. 이날 발견된 불발탄은 육군포병학교가 지난 1951~1994년까지 포 사격 탄착지로 44년 동안

이용한 뒤, 지난 95년 1월~96년 9월 1년 9개월 동안 불발탄 등을 수거하고 난 뒤 10년 만에 또 나타난 것이다. 이날 군부대 처리반이 휴대한 장비는 지하 30cm 이하에 있는 불발탄 등 금속물은 탐지할 수 없는 장비여서, 사실상 육안 검사에 의존해 불발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86만 평의 어등산 관광단지 예정 부지 가운데 11만 평의 포 사격 탄착지 일대에 보다 많은 불발탄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착지가 골프코스 예정지·골프장 클럽하우스·가족호텔 사이 등 어등산 개발 예정지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4곳에 위치해 있어, 이곳의 불

발탄을 제거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발탄이 발목 잡나=광주시는 지역 군부대의 경우 정밀한 불발탄 탐지가 없는데다, 인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지원요청을 해 둔 상황이다. 10월 중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때문에 연내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전에 불발탄을 모두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민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포탄의 경우 지하 수m까지 박힐 수 있기 때문에 탐지기만으로 불발탄 매설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포의 특성상 비산(飛散) 거리가 목표지점을 이탈하는 경우도 많아 탄착지



▲어등산 관광단지=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84만 평에 3천205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2012년까지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대역사. 지난 3월15일 착공했으며 27층 규모의 골프장·테마파크·가족호텔·빛의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외의 지역에도 불발탄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도 부담이다.

지역 군부대 관계자는 “공사도중 발견되면 불발탄 처리반을 파견할 것”이라며 “상부에 이와 관련한 지원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기자 jjnews@kwangju.co.kr

나원침 (6816)



순천 현대하이스코 격렬 시위

공장 진입 시도...물대포·쇠파이프 충돌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정희성)는 27일 오후 순천시 율촌산

단 고갯길 쉼터 앞에서 ‘5·1정신계승 현대하이스코 비정규투쟁승리 광주·전남

2차 총궐기 대회’를 갖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천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당초 대회장소였던 현대 하이스코 정문 앞



순천 현대하이스코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 조합원 1천500여명이 27일 오후 율촌산 단 입구 도로에서 물대포를 쏘며 진입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순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율촌산단 입구로 장소를 옮겨 여수~순천간 6차선 도로를 봉쇄하고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현대 하이스코 해고자 120명 원직복직 ▲사측의 노조원 상대 72억 원 손해가입류 철폐 ▲구속자 석방 ▲노동조합 안정 및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현대 하이스코 공장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 또 덤프트럭 8대를 동원해 흙과 자갈을 싣고 집회장소 후미에 쌓아놓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또 집회 과정에서 불법시위 자제를 호소하던 전·외경 어머니회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모(여·51·광주시 서구 풍암동)씨와 경찰 이모(44) 경위가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시위진압 과정에서 김모(22) 수경 등 전경 4명이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50개 중대를 배치해 조합원들의 공장 진입에 맞섰다.

한편 이날 총파업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조 간부 위주로 진행돼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생산 차질은 없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연예2차동원회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만 353부만
문의 (062)366-4220

車 저수지 추락 2명 사망

27일 오후 2시54분께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영화마을 앞 권도 1차선 도로에서 장성에서 고향 방면으로 가던 안모(42·서울 관악구)씨의 레간차 승용차가 길 옆 3m 아래의 저수지로 추락, 안씨와 동승한 전모(56)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장성=고재민기자 jngo@kwangju.co.kr

장애 학생 성폭행범 기버은 처벌 반발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50대 교직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장애인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진중)는 27일 장애를 지닌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광주 모 특수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대폭 낮은 징역 1년을 선고.

○광주장애인여성연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특수학교 내 성폭행 사건대책위’는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폼 망수전문!
지붕 망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TEL: 0621-28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업/양도/임수
TEL: 06512-0347-0 FAX: 06512-1067

독일보청기
독일보청기
TEL: 062-1188-1173

공무원 직장인 신용(보증)대출
공무원, 교사, 군부대, 군인, 공무원, 공무원연금, 신용보증차기
TEL: 1544-1731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5월 1일
TEL: 361-8111